

디지털 대전환 시대 상생 방안 논의

우범기 전주시장, ICT융합·블록체인·메타버스 등 지역 20개 ICT기업 대표들과 간담회 가져

우범기 전주시장이 '강한 경제' 전주 실현을 위해 지역 ICT기업 대표들과 머리를 맞췄다.

우범기 시장은 4일 전주 VR·AR제작거점센터에서 4차산업혁명의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지역 ICT 기업과의 상생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ICT융합, 정보보안, 빅데이터, 블록체인, 메타버스, 콘텐츠 게임, 모빌리티 분야의 전주지역 20개 사 대표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참여기업 대표들은 경력직 지역 인재 채용과 마케팅 등 기업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이들은 또 △청년 인재 정착 지원 △창업 인큐베이팅을 넘어선 기업의 성장 지원 △기업 집적 입주 공간과 신기술 개발 지원 확대 △기업-대학 간 협력을 통한 공모사업 확대 등 다양한 발전방안을 시에 건의했다.

이와 함께 이날 간담회에서는 시 협력으로 정부 R&D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지역기업 중 (주)로스의 '지역 SW 서비스사업화' 사례가 소개돼 참석한 ICT기업 대표들에게 도전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디지털산업은 현재 국내의 신시장의 성장을 주도하고,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하며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사진 오른쪽에서 세번째)은 4일 전주 VR·AR제작거점센터에서 4차산업혁명의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지역 ICT 기업과의 상생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에 ICT 산업이 지역의 다양한 산업 분야와 연대해 새로운 도전과 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 대전환의 혁신 전력이 요구되고 있다.

시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민선 8기 '디지털 신산업 생태계 육성 및 신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디지털 혁신 클러스터 조성 △클라우드 데이

터센터 유치 △지역 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사업 △메타버스 산업 육성 △미래기술 융합 광역기반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 △디지털전환(IDX) 센터 구축 등에 공을 들이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간담회를 통해 지역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였다"면서 "오늘 이 자리가 전주시 디지털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발판이 되어 청년이 정착하고, 미래 신산업이 역동하는 전주가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전주시 디지털 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모든 워킹맘을 응원합니다”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 경력단절예방 인식개선 챌린지 진행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박성숙)는 제28회 양성평등주간(9월 1일~9월 7일)을 맞아 9월 한 달 동안 '워킹맘 응원챌린지'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워킹맘 응원챌린지'는 여성의 경력단절예방 인식개선 캠페인의 일환으로, 일하는 아내와 엄마, 친구, 딸, 동료 또는 나에게 응원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여 방법은 영상, 편지, 사진 등 인스타그램과 블로그 등 개인 SNS에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 '#워킹맘응원챌린지'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올리거나, 워킹맘에게 문자 전송 후 링크 또는 문자를 캡처해 센터 누리집에 게시하면 된다.

이번 캠페인에는 전북도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 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센터는 10월 중 우수작을 선정해 △대상 1명 20만 원 △최우수상 4명 10만 원 △우수상 4명 5만 원 △장려상 8명 3만 원 △선정자 50명 1만 원을 각각 수여할 계획이다.

박성숙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은 "이번 경력단절예방 캠페인을 통해 워킹맘에게 자신감과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힘들게 취업한 여성이 다시 경력 이 단절되지 않도록 다양한 예방 사업 통해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는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행정안전부 주최로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1회 고향사랑의 날 박람회'에서 전주시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전주시보건소,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하세요”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진선)는 가을철을 맞아 농작업 등 야외활동이 늘어나고, 추석 명절을 맞아 성묘객과 벌초객이 증가함에 따라 진드기 매개 감염병에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4일 보건소에 따르면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대표적으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쯤쯤가무시증이다.

SFTS의 경우 국내에서는 주로 6월부터 10월까지 집중 발생하며, 고열과 함께 오심,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하지만 치명률이 매우 높고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다.

쯤쯤가무시증은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집중 발생하며, 쯤쯤가무시균에 감염된 털진드기 유충에 물려 감염되고 심한 두통, 발열, 오한 등의 증상과 물린 부위에 가피(검은 딱지)가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관련 보건소는 주요 등산로와

산책로 등에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35개 동 주민센터에 휴대용 진드기 기피제를 배부했다.

특히, 보건소는 농촌동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찾아 농업인 대상 예방수칙 및 기피제 사용법을 교육하고 있으며, 예방 물품(토시, 돗자리, 기피제)을 배부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농작업 및 야외활동시 피부가 진드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긴 소매와 긴 바지, 양말, 장갑 등을 착용해야 하며, △작업 전 진드기 기피제 뿌리기 △풀밭에 앉을 때 돗자리 사용 △귀가 즉시 옷은 털어서 세탁하고 바로 샤워하기 등 예방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이에 앞서 올해 전주지역에서는 현재까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2명, 쯤쯤가무시증 11명 등 진드기 매개 감염병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국민권익위원회,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전주시는 오는 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청년이음전주 1층 다목적실(전주시 완산구 현무1길 31-5)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전주시민의 고충 해결을 위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관이 전국의 민원현장을 직접 찾아가 현장에서 지역주민, 소상공인 등의 고충을 청취·상담하고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민 권익구제 서비스이다.

상담 중 해결이 가능한 고충이나 민원은 현장에서 즉시 해소하고,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고충 민원으로 접수해 심층 조사와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처리하게 된다.

이번 전주시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온라인청년센터가 협업기관으로 참여하여 시장상인회와 소상공인 등의 애로사항이나 불편은 물론, 취업을 준비하고 있

는 청년들에게 취업지원서 작성에 관한 상담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이날 현장에서는 △행정문화교육 △국방보훈 △경찰 △재정세무 △복지노동 △산업농림환경 △주택건축 △도시수자원 △교통도로 등(국민권익위원회) △창업·경영현대화 등 소상공인 지원 △전통시장 시설개선·활성화 △불공정 거래 피해 상담 등(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취업지원서 첨삭 및 작성 방향성 제시 등(온라인청년센터) 다양한 분야의 심도 있는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달리는 국민신문고가 전주시민들의 다양한 불편 사항들의 해소에 좋은 기회가 될 거라 기대한다”며 “모든 상담 신청은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당일 현장 접수로 이루어지며 상담을 희망하는 전주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만큼 생활 속 불편 사항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제1회 고향사랑의 날 박람회’서 홍보부스 운영

전주시는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행정안전부 주최로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1회 고향사랑의 날 박람회'에서 전주시 홍보부스를 운영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고향사랑의 날(9월 4일)'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로, '고향사랑기부제, 고향과 국민을 잇습니다'라는 주제로 전국 243개 지자체가 참여했다.

시는 이번 행사에서 전주시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리기 위한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지역특산물·공예품·체험형 답례품 52종을 소개했다.

또한, 전북도와 연계해 홍보관 내 각종 이벤트를 진행해 방문객의 호응을 유도하기도 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제1회 고향사랑의 날을 맞이해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서 전주시 고향사랑기부제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며 “전주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이 제공되며, 고향사랑을 홈페이지나 전국 NH농협은행 창구에서 참여할 수 있다. /김옥기 기자

2023 진안홍삼축제의 성공개최를 응원합니다

○ 일시 : 9. 22.(금) ~ 9. 24.(일)
○ 장소 : 진안 마이산(북부)

기부하여 혜택받고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자신의 주소를 제외한 영하는 지자체(고향)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제 혜택과 기부금의 일정액(단체별로 제공되는 제도)

고향사랑기부 신청 방법
> 시일 : 2023년 1월 1일
- 온라인 : 정부 종합민원시스템(고향사랑) 앱
- 오프라인 : 농협은행 농축협
* 세무자료 : 지방 민원센터, 민원 초빙센터 등
* 기부소득세 신고 : 지방 민원센터 등

**농협 진안군지부장 변성섭
백운농협 조합장 김연태
전북인삼농협 조합장 신인성
진안농협 조합장 김문중
부귀농협 조합장 김영배
무진장축협 조합장 송재근**